200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 답

1	①	2	③	3	②	4	⑤	5	④	6	②	7	①	8	⑤
9	⑤	10	⑤	11	②	12	②	13	②	14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⑤	19	⑤	20	④	21	②	22	④	23	③	24	⑤
25	①	26	⑤	27	④	28	④	29	④	30	④	31	①	32	③
33	①	34	③	35	②	36	②	37	④	38	⑤	39	⑤	40	③
41	②	42	②	43	②	44	③	45	②	46	②	47	③	48	③
49	③	50	②	51	⑤	52	①	53	③	54	③	55	④	56	①
57	②	58	③	59	①	60	①								

해 설

〔듣기 대본〕

〔1번〕 이제 여러분에게 교양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 서울아리랑(이 부분만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소리 점점 작아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은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려진 노래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애국가 대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리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리랑'의 '아리'에는 '곱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아리따운'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어와 친족 관계에 있다는 몽골 어에서 '아리'는 지금도 '곱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 '아리'에는 '사무치게 그립다'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이 뜻은 현대어의 '아리다'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리다'는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다'는 뜻인데, 사랑에 빠져 상사병에 걸렸을 때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리랑'에서의 '랑'은 '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랑 중에서 '원술랑', '기파랑' 등에는 모두 '랑'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랑'이 사람 이름 뒤에 붙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오늘날 '선생님', '손님' 하는 말에서의 '님'과 대응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아리랑'은 '고운 임' 또는 '사무치게 그리운 임'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리랑'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민요 '아리랑'은 '곱고 그리운 임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요. 어쨌든 '아리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참뜻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방송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지역할당제에 관한 한국대학교 총장과의 인터뷰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보도되자 각종 언론 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 게시판에도 하루만에 일천 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인터뷰의 일부를 잠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총장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 쿼터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신입생 5천 명을 뽑는다면, 그 중 2천 명 정도를 지역별로 할당하겠다는 것이죠. 이 지역할당제는, 자질과 능력은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방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결국 지역할당제는 열악한 환경의 인재들에게 계층 이동의 기회까지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죠. 계층 이동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가 이룩된다는 저의 평소 신념과도 통하는 겁니다.

앵커 : 이 보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내 멘트〉 : 이제 학생들의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답을 고르십시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좋지요. 저처럼 학원 하나 없는 촌동네에 사는 애들도 한국대학교에 갈 기회가 생기겠군요.

(두 번째 학생입니다.) 전 한국대학교 3학년입니다. 지방 고등학교 나왔고 재수까지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재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입니다.) 지역할당제를 지방 국립대학교까지 확대했으면 좋겠군요. 서울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을 교환하면 계층 이동의 기회도 많아지겠구요.

(네 번째 학생입니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했다고 한국대학교에 갈 기회가 줄어든다면 그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다섯 번째 학생입니다.) 서울에 살아도 저처럼 어려운 집 애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잣집 애들에게 치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방으로 이사할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자 : 옛날에 이규보라는 학식이 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 : 어제 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웃 마을에 다녀오다가 동구밖에 이르렀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개를 쳐 죽이고 있더군요. 보기에 너무 참혹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죠.

해설자 :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비 : 저도 비슷한 맹세를 한 적이 있죠. 금강산 구경을 하러 여행을 하다가 주막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날이 쌀쌀해서 그런지 화롯가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을 여기 저기 뒤척거리더니, 이를 잡아서 그 화롯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질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님 : (불만인 듯한 어조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저야 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한 말인데, 당신은 이를 가지고 대꾸하니, 날 놀리는 게 아닙니까?
해설자 : 손님이 화가 난 듯이 대들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비 :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한번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의 뜻을 아시게 될 겁니다.

〔4번〕 이제 여러분에게 '다용도 칼'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그림을 보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료수 한 잔 마시려는데 병따개가 없어서 난처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은 등산·낚시 등 레저를 즐기는 분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다용도 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칼을 펴보면 각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스크린을 같이 보실까요?
먼저 ㄱ자 형태의 머리를 가진 이것은, 우리들이 음료수나 술, 통조림 등을 따려고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악어 턱과 같이 생긴 아래 부분을 병 뚜껑이나 통조림 테두리 아래에 고정시키고 힘을 주면 쉽게 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뾰족한 새 주둥이 모양을 한 이것은, 물체에 구멍을 뚫을 때 송곳 대신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두꺼운 천이나 가죽 등 바늘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눈 모양으로 보이는 구멍에 실을 꿰어 사용하면 손쉽게 꿰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머리 모양이 일자(一字) 드라이버처럼 생긴 것은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칼은 긴 것과 짧은 것 두 개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알맞은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칼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긴 칼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칼보다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5, 6번〕 이번에는 좌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 :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우리의 언어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신속을 요하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어법에 어긋나는 준말을 사용하거나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표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문법이 심각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현상이 실생활에까지 파급된다면 세대 간의 의사 소통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통신 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군요. 하지만 통신 언어가 지니는 장점 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선생님 : 통신 언어가 우리 언어를 오염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에 통신 언어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결한 의사 교환을 할 수 있죠. 또한 그런 표현을 통해 통신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통신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겠군요. 모든 통신 언어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 선생님 : 통신 언어의 수용에 대한 문제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 언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향 친구끼리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경우에 어법에 어긋난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 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통신 언어가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권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1~6〕 듣기

1.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적용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를 해석하면, 먼저 '아리'는 '고운' 또는 '사무치게 그리운'의 뜻이고, '랑'은 '임'을 뜻한다. 따라서 '아리랑'은 '고운 임' 또는 '사무치게 그리운 임'이 되어 답은 ①이 된다.

[오답피하기]

④번의 경우 '사무치게 그리운 임'과 '아리랑'은 같은 의미이므로 중복하여 해석한 것이다.

2. [출제의도] 의도의 파악

총장 발언의 핵심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한 학생이라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생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학생은 반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세 번째 학생은 지역 할당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학생이다. 서울 학생과 지방 학생을 교환하는 것은 지역 할당제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3. [출제의도] 말하는 의도 파악 및 적용

선비는 외적인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존재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다. 빈부의 차이는 외면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중시하는 선비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

'다용도 칼'에 대한 설명을 방송 순서대로 보면, 병따개(③), 송곳(④), 드라이버(①), 긴 칼(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코르크 마개를 딸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설명은 없다.

5. [출제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①과 ③은 이 선생님의 말에서, ②와 ⑤는 김 선생님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다.

6.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

사회자는 김 선생님의 통신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말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여 이 선생님의 발언을 유도하고, 통신 언어를 일상 언어로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박 선생님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또 사회자는 통신 언어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자고 말하는 대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개념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다.

〔7~12〕 쓰기

7. [출제의도] 적절한 주제의 설정

자신이 볼링공을 차에 실은 사실을 잊은 채, 차가 고장이 난 것으로 생각하여 정비소에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모습이다.

8. [출제의도] 자료의 활용

이 문제의 핵심은 〈자료 1〉과 〈자료 2〉를 함께 활용하여 개요에 수용하는 것이다. 〈자료 1〉은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

를, 〈자료 2〉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자료를 개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핵가족화의 부정적인 측면인 Ⅱ-2이다.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두 자료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 해체와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은 서론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②와 ③은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④는 '방안'으로 부정적 측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9. [출제의도] 연상을 통한 적절한 글감 구상

'얕다'는 '깊다'와 대립되는 단어로서, '깊다'를 통해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깊다'와 '얕다'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원만한 인격'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연상이다.

[오답피하기]

③은 앞의 연상 항목인 '끊임없다'를 통해 다시 연상한 것이다. 따라서 ③은 '강→흐르다→끊임없다→③'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상한 것이다.

10. [출제의도] 어휘의 쓰임

⑤의 '하다'는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영하다'의 뜻이므로, '선생을 하다', '학문을 하다'와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철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의 '하고'는 ①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11.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는 표현

〈보기〉의 조건 중 대나무의 속성으로는 사시에 푸름을 잃지 않는다는 점과 곧은 줄기, 휘어지지만 꺾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반영하면서 의인화의 방법을 사용하고 성찰과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 ②는 초장에서 변하지 않는 푸른 잎과 곧은 줄기를 들어 굳은 지조나 절개 등을 연상시킨다. 중장에서는 대나무를 지사에 비유하여 의인화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대나무의 지사적 풍모로 자신의 가슴속 티끌을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비치고 있어 성찰과 소망의 자세를 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③, ⑤는 사람에 비유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소망이 담겨 있지 않다. 단지 대나무에 대한 예찬만 담겨 있다. ④는 회상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12. [출제의도] 원고지 양식에 맞추어 퇴고하기

'적'은 '때', '시절'의 뜻으로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오답피하기]

① '생각나는 사람'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지시어를 '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장기(長技)'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④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자연스럽게 한 것이다.
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13-17〕 김만중, 〈구운몽〉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유배지인 남해에서 어머니 윤씨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국문 소설로, 조선 시대 양반 사회의 생활상과 이상을 그린 대표적인 양반 소설이다. 꿈과 현실의 이중적 구조인 환몽(幻夢) 구조로 이루어졌다.

13. [출제의도] 글의 구조 파악

윗글의 구조는 (a)는 연화봉의 성진이 속세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b)는 (a)에서 꿈꾸던 속세의 삶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c)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구도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성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 확인

양소유와 성진은 각각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로 해석해야 한다.

15. [출제의도] 소설의 감상 적용하기

손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자연의 영원성을 부러워하지만, 양소유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참된 진리를 깨우치고자 한다. 양소유가 자연의 영원성을 부러워하는 내용은 없다.

16. [출제의도] 한자 성어의 적용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②는 회자정리(會者定離 :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짐)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포의한사(布衣寒士) : 벼슬하지 않은 가난한 선비
상전벽해(桑田碧海) : 세상 일의 변화가 심함
일장춘몽(一場春夢) : 꿈과 같이 헛된 한 때의 부귀 영화
입신양명(立身揚名) :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17. [출제의도] 다른 장르에의 적용

십 년 동안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승려의 말이 근거가 없는 것 같아 의아하게 여기는 대목임.

〔18~22〕 고전 시가

(가) 정철, 〈관동별곡〉

이 노래는 화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금강산과 관동 지방을 유람한 후 여정에 따른 아름다운 경치와 고사(故事), 풍속(風俗) 등을 읊은 가사이다. 우리말의 구사가 유창하고 화자의 사상과 정서의 추이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맹사성, 〈강호사시가〉

자연 속에서의 네 계절의 즐거움을 각 계절마다 한 수씩 읊은 것으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은사(隱士)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잠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충군(忠君)의 정신으로 종장의 끝 구절인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서 임금을 향한 유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의 화자는 부임지로 가는 여정에 따른 자연의 경치를 즐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오십천의 물을 임금이 계신 한양 한강의 남산에 대고 싶다고 하여 연군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고 하였다. 두 작품은 모두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에서 자연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 아니고 즐기는 공간이다.

19.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심리 추리

〈보기〉의 시조에서 강호(江湖)는 자연을, 성주(聖主)는 임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지내려고 하니 임금에게 불충하는 것이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자니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떠나야 하는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는 관찰사로서의 순행(巡行)의 여정은 끝나 가는데 자연에 대한 사랑은 끝없이 화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충군 애민의 현실적 의지와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 자연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

20.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나)에는 네 계절이 나타나 있으며, 그 계절에 맞는 풍취를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운치 있는 생활을 그리고 있다.

21.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 추리

여기서 '히타'는 이백의 '등금릉봉황대'의 마지막 두 구절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총위부운능폐일 장안불견사인수)'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이백은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시구(詩句)는 후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지은이의 경탄과 공감이 나타난 구절이다.

22. [출제의도] 발상과 표현

이 구절의 의미는 '조용하구나 이 경포의 기상, 넓고 아득하구나 저 대양의 경계'로 화자가 정자 위에서 경포의 정밀미(靜密美)와 동해의 광활미(廣闊美)를 번갈아 완상하고 있다. 수사법으로는 대구법, 도치법, 영탄법이 쓰였다.

〔오답피하기〕

①은 대구법, 대조법 ②는 열거, ③는 도치법, ④는 대구법, 도치법, 영탄법, ⑤는 대구법

〔23~26〕 언어 - 5차 국어 교과서, 〈우리말의 의미 변화 〉

언어의 의미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를 그 원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의미 변화의 원인으로 언어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 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국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23.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의 확인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단어는 기존에 있던 단어의 의미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가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4. [출제의도] 중심 내용의 파악

윗글의 중심 내용은 언어의 음성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과 의미의 결합 관계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의 한 예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다른 말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다. '천연두'는 두려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마마'와 같은 다른 말로 바꾸어 불렀다.

26. [출제의도] 논리적 사고에 의한 단어 의미 추리

'완곡(婉曲)'의 일부분을 근거로 전체 뜻을 살핀 것이 아니고, 각각의 한자어 지식을 활용하여 뜻을 합한 것이다.

〔27~31〕 사회 -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정치인들의 행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인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를 통하여 서술하고 있다. 베짱이가 종족 번식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여왕개미가 일개미를 부리는 것은 정치인이 유권자인 국민을 부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와 유사함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의 확인

여섯 째 단락에서 '가끔 굴 한 쪽 구석에서 따로 알을 낳아 기르기도 하는 일개미들이 있다.'는 부분에서 알을 낳기 위해 서식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독자의 반응 파악

이 글의 내용은 베짱이나 개미 모두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④는 이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29. [출제의도] 속담의 의미 파악

㉠은 유권자는 위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속담은 ④이다. ④는 맡은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잇속이 있는 데에만 마음을 둔다는 뜻이다.

〔오답피하기〕

①은 하는 짓이 염치없고 단작스럽다.(치사스럽다)
②는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긴다.
③은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이룬 것까지 잃어버린다.
⑤는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30.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 및 적용

유추란 생소한 어떤 개념이나 현상을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은 여왕 개미가 여왕 물질을 분비하여 다른 일개미들이 수태할 수 없게 하는 현상을 인간 사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억압으로 빗댄 것이다. 마찬가지로 ④도 비자나무 바둑판이 특급품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사람이 잘못을 고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빗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은 분석, ②는 예시, ③은 서사, ⑤는 묘사이다.

31. [출제의도] 어휘 간의 관계 파악

포식 동물은 더 강한 정치 세력이라는 넓은 의미이지, 집권 정당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비유적으로 대응되고 있다.

〔32~36〕 현대시

(가) 김남조, 〈설일〉

이 작품은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의 풍경을 보면서 삶의 자세를 짚어 보고 있는 작품이다.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평소 종교적 신앙심을 생활에 연결짓고 있다. 쉽고 평이한 시어 속에 인생에 관한 관조적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나)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함박눈이 되고, 남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리는 편지가 되고, 남의 상처를 보듬는 새 살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남의 상처를 덮어 주고 남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싶은 화자의 긍정적 삶의 자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반어적 발상을 바탕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찾기

(나)는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는 반어적 발상을 토대로 이웃의 불행에 무관심한 대상이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다)의 화자는 따스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살자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 사회의 냉정함을 비판한 ①이 가장 가까운 답이다.

〔오답피하기〕

②는 절제하지 못하는 개인의 부덕함을, ③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한 비판을, ④ 무면허 의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⑤는 재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안일함을 비판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의 적용

〈보기〉의 시에는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은 '꽃이 흔들리며 핀다'는 대목에서, ②는 '흔들리다', '젖다'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련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④는 원시(原詩)에 드러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 ⑤ '있으랴'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머리채 긴'은 바람을 의인화한 것이고, '투명한 빨래'는 바람을 시각화한 표현이다. 따라서, ㉠의 표현상 특징은 ②가 된다.

3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

ⓐ는 힘들고 지친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는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 ⓔ는 현실의 부정적인 고난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긍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7~41〕 예술 -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동양화를 읽는 방법에는 우의(寓意)로 읽는 법,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읽는 법, 고전 문구나 일화를 상기하며 읽는 법이 있다. 이러한 독화(讀畵) 방법을 알아야 동양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 확인하기

동양화의 감상에는 고사에 대한 지식, 소재의 상징적 의미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지만, 서예의 필법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없다.

〔오답피하기〕

①은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②는 (가)의 두 번째 단락에서, ③은 (가)의 세 번째 단락에서, ⑤는 (가)의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출제의도] 유사한 의미의 적용

(나)에는 물고기 세 마리가 그려져 있다. 이를 '삼여도'라 하는데 학문을 권장하는 의미의 작품이다. ⑤는 이황의 '도산십이곡' 중 제11수로 주제는 '학문 수양과 정진'이므로, '삼여도'의 의미와 통한다.

〔오답피하기〕

①은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②는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작가의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은 '오우가(五友歌)' 중, 물의 영원성을 기린 노래이다. ④는 자연과 벗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의 적용

만화의 내용을 보면 '공천(公薦)' 받으라고 공이 천 개가 그려진 옷을 사왔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공 천 개(공이 천 개가 있다)'의 '공 천'을 발음이 같은 '공천(公薦)'으로 읽은 것이므로 '동음 이자(同音異字)'의 방법으로 해석한 것이다.

40. [출제의도] 적절한 상황에 적용하기

할아버지의 칠순에 드릴 선물이라면 할아버지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 적절할 것이다. ③은 대나무와 바위가 있는 그림으로 '죽석도'이다. 이는 '축수(祝壽 : 오래 살기를 빎)'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은 조롱박, ②는 포도 그림으로 자손이 번창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④는 매화, ⑤는 난초로 사군자이다. 이는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4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도외시(度外視)'는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다.

〔오답피하기〕

①은 백안시(白眼視), ③ 청안시(靑眼視), ④는 중시(重視), ⑤는 방관(傍觀)의 뜻이다.

〔42~45〕 수필 - 법정, 〈무소유〉

이 글은 그 주제와 필자의 종교가 갖는 상관성 때문에, 주제가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치를 다루고 있다. 평범한 인간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의 필요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승으로서의 필자의 깨달음의 한 과정으로서 무소유 사상을 얻게 된 이치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글은 필자 자신이 가고 있는 구도의 길이 주는 경건함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난초를 기르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① 버린다는 데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함을, ④ 무소유를 강조함으로써 현대인의 물질주의를 경계하며, ⑤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43.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의 적용

프롬은 '소유의 삶'은 소유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삶의 태도이며, 이러한 삶이 현대인의 비극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다. 수필의 글쓴이도 소유가 번뇌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욕에서 벗어나 존재를 충만하게 하는 삶을 지향한다'는 결론으로 보아 '소유의 삶'의 결과를 '풍족한 삶의 여유'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글쓴이의 태도 비판

〈보기〉는 자신에게 고난이 될지라도 고통을 무릅쓰고 무한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얽매임이 되는 난초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4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

㉡은 '품었던 생각이나 버릇 따위를 스스로 잊다.'의 뜻으로 ②가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①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 ③ 사용하지 않고 묵혀 두다. ④ 성품이 나빠지다. ⑤ 사람과의 사이를 끊고 돌보지 아니하다.

〔46~50〕 인문 - 고병익, 〈유교와 국가 정치〉

유교 정치의 합리성에 대해 언급한 후, 가산제 국가 이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유교 국가의 목표가 덕치(德治)에 있음을 서술하며 군주와 관리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46.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

(나)는, 유교 국가에서 군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가산제 국가 이론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유교 국가의 특성'이 핵심 화제이다.

47. [출제의도]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전제주의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유교 국가에서는 군주의 도덕 정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천명이 철회되어 군주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때문에 군주는 항상 덕을 닦아야 한다. 이런 점은 군주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즉, 군주가 '덕치'에 어긋나는 정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48. [출제의도] 유사한 관점의 파악

천자는 천명을 받은 존재지만 도덕 정치에 위배될 때에는 제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여 군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심이 떠나 있으면 군주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③이 유사하다.

〔오답피하기〕

①은 법을 지켜 세금을 정당하게 거두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②는 임금에게 충언을 하고 다른 신하에게는 깨우침을 주는 훌륭한 신하의 자세를 말한 것이다. ④는 목자(관리)가 백성을 위해 존재 해야 하는데 백성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⑤는 왕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49. [출제의도] 부적절한 견해의 비판

㉡은 중국이 세습 가산제 국가라는 생각인데, 이는 유교 국가에서 관찰되는 예외적인 현상—일부 새 왕조의 창시자나 그 공신들의 행동—을 유교 국가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즉, 유교 국가에서 군주는 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의 도덕 정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군주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군주의 세습 가산일 수는 없었다.

50. [출제의도] 적절한 근거의 제시

이 글은, (다)에서 유교 국가의 목표가 '덕치의 구현'임을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으로 군주와 관리들이 '덕'을 갖추는 것을 들었다. 또한 (마)에서는 관리가 주체가 되어 덕치 구현의 책무를 진다는 언급이 있다. 따라서 ㉢은 관료 계층이 덕치 구현의 주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1~55〕 현대 소설 - 김유정, 〈만무방〉

이 작품은 1935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만무방'이란 원래 '염치없이 막돼먹은 사람'이란 의미로, 열심히 일해도 살아가기 힘든 응칠이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있다.

5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응칠이가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일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52. [출제의도] 장면의 확인

응칠이는 세간을 빚쟁이들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글을 적어 두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 따라서 세간을 챙겨 집을 떠나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53. [출제의도] 인물이 처한 정황 파악

③은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으로 '보습(쟁기) 대일 땅', 즉 농토를 빼앗김으로써 물거품이 되어 버린 꿈을 쓸어안고,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하 농촌의 궁핍한 현실에 부대끼던 응칠의 정황과 비슷하다.

〔오답피하기〕

②는 김광균의 '은수저'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④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한시적(限時的)인 아름다움의 소멸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의 비애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는 이형기의 '낙화'로 지금 겪는 아픔이 성숙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슬픔 자체는 부정할 수 없기에 마지막 시행에서 물의 이미지를 이용, 눈물의 형상을 암시하고 비애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54.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 파악

농사를 짓고 살던 응칠이가 가난 때문에 아내와 의논 끝에 빚잔치를 한 다음 집을 떠나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구걸하며 살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으며(㉡), 응칠이 혼자 정처 없이 유랑하다가(㉠), 동생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오게 되었다(㉢).

55. [출제의도] 사전적 의미 파악

④의 매팔자는 '놀면서 살림 걱정이 없는 팔자'라는 말로 여기서는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날이었다'와 더불어 반어적 표현이다.

〔56~60〕 과학 - 김홍재, 〈예측 불가능한 기형아 태어날 수 있다〉

체세포 복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현재 체세포복제술은 동물을 상대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기술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와 전문가의 견해를 곁들여 뒷받침해 나갔다.

5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

이 글은 체세포 복제의 현황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시했으며, 특히 체세포 복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뒷받침하였다.

〔오답피하기〕

③ 여러 가지 대상의 관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공통점 추출에 대한 언급도 없다.

57. [출제의도] 미루어 알기

첫째 단락에서 '아이의 유전자는 체세포의 제공자와 같게 된다'고 했다. 이는 유전자가 같다는 뜻이지만, 복제된 개체의 외형이 반드시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④는 둘째 단락에서, ③, ⑤는 셋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58. [출제의도] 이해한 사실의 적용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부분을 통해서 '나이'와 '텔로미어의 길이'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59. [출제의도] 예측되는 문제점 추리

〈보기〉의 빈칸에는 체세포 복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넣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 오염'은 체세포 복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답피하기〕

②, ④, ⑤는 이 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인간이 대량으로 복제될 경우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60. [출제의도] 어휘 적용

비견(比肩)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의 뜻으로 '병견(竝肩)'이라고도 쓴다.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등하다는 '비견'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피하기〕

②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③은 예를 들어 견주어 보는 것. ④는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끎. ⑤는 둘 이상의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대조(對照).